

헌금의 동기와 진정성 평가

성경말씀: 눅21:1-4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 1. 백성들의 호산나 환영, 2. 성전 청소(강도들), 3.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침,

이제 십자가 처형까지 3-4일 남음, 지도자들의 반발: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감

죽기 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주심

지난 주 서기관이라는 종교인들이 등장한다. 성경 학자, 율법 박사,

주님의 질문, 시110:1, 다윗이 그분을 주라 부르니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육신, 다윗의

자손, 본래 다윗의 주님, 인성과 신성

이들의 문제: 성경 지식이 풍부하나 전통으로 인해 진리를 보지 못한다.

1. 교만하게 행한다(46), 2. 욕심을 부려 과부들을 강탈한다(47), 3. 위선을 부린다(47), 4. 큰 정죄를

받는다. 5. 결국 이들은 백성을 선동해서 주님을 죽이며 예언을 성취함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 인간의 노력과 의를 통해 하나님께 가려는 시도

발상 자체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낸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엡2:8-9). 기독교의 핵심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 기록을 모른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른다(막12:24).

과부 이야기

하나님이 미워하는 종교인, 사랑하는 성도의 차이를 보여주시려고 성전 보고에 예물 드리는 것 언급(1)

섬뜩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신다. 예배, 헌금, 생활, 공부, 운전, 설거지

성전 보고의 유래: 요아스 시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만듬(왕하12:9). 성전 보수를 위한 자원 헌물,

성전 바깥뜰 입구, 희생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보고에 돈을 드림

보고의 발전: 구멍 있는 단순한 궤(왕하12:9)

주님 당시에는 큰 궤, 놋으로 만든 13개의 나팔 모양 헌금 통

나팔처럼 위는 가늘고 내려가면 넓게 되어 있다.

미쉬나, 나팔 통마다 글이 있다. '나무', '새', '향', '공홀 자리 금', 등 그리고 6개에는 '자원 헌물'

평상시에도 보고는 봄비는 장소, 지금은 유월절, 내외 사람들이 몰려들.

사람들이 손을 대므로 놋 나팔이 반짝반짝 빛남

이런 시점에 주님이 유심히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봄

주님의 관점: 헌금 자체가 아니라 동기, 진정성, <헌금의 동기와 진정성 평가>, 한두 차례 헌금 설교

주님이 본 것

1. 부자들이 예물을 넣음(1)

부자의 헌물이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좋은 부자도 많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등

종교인들의 특징: 마6:1-2, 구제, 기도, 금식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지금 이것은 공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보고 있다. 놋 나팔 통이므로 돈 소리가 난다.

부자 종교인: 하인들을 대동하고 와서 많은 동전을 집어넣음, 동전 소리가 요란함

부자의 만족, "누가 나보다 더 하랴?", 이곳은 교만한 영혼들의 전쟁터, "나는 충분히 했다."

2. 과부가 작은 예물을 넣음(2)

웃이 허름하고 행색이 구차해 누가 보아도 가난함을 알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와 고아는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주님의 신신당부(신명기 15장)

이 렵돈, 심히 작은 구리 동전, 부자들이 내는 세겔의 400분의 1 가치

백만 원, 2500원, 2 렵돈 5000원, 워낙 작아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누가 볼까봐 조심하며 들어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는 살며시 넣는다.

사람은 보지 않는데 주님이 보신다.

동기가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6:4-5 실천, 이것 외에는 없다.

그 두 개의 동전으로 인해 성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말할 수 없이 더 가난해졌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4).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은 동전을 넣을 때 감탄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큰 감동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과부의 작은 동전 2개에 감동을 받으셨다. 그 이유(4)

그리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판단하신다(3).

영원의 저울: 과부의 이 렵돈, 13개 나팔 통의 세겔, 금, 은 등, 이 렵돈이 무겁다.

헌금의 필요성과 몇 가지 중요 사항

모든 조직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국가, 학교, 가정, 왜? 조직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려고

교회도 헌금이 필요하다: 왜, 우리의 가치를 지키려고

빌딩, 목회자, 사역자 사례, 교제, 교육, 선교 등

먼저 구원받은 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헌금해야 한다.

헌금 자체는 결코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헌금은 구원 뒤 감사로...

1. 헌금을 할 때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양이나 헌금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기

세금, 전기 전화 가스 요금, 동기에 상관없다. 내면 끝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행위나 양이 아니라 동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교우 사랑
가치 사랑(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사회, 바른 국가)

2. 주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

이 과부 여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다음 주에는 며칠 동안 하루에 한 번은 금식해야 한다.

매주 헌금, 미디어 선교 헌금, 건물 헌금, 건물 짓기 위한 폴링 약정 등 특별 헌금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삶에 궁핍이 있어야 한다(삼하24:24).

차, 집, 취미 생활, 여행 등이 미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헌금은 중대한 예배 행위이다.

3. 이렇게 바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일을 하신다.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교회의 정신과 가치는 과부의 헌금의 지켜져 왔다.

성경 보존, 신약 교회 정신 보존, 부자들에 의해, 돈 많은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세 암흑시대: 왈덴시스, 보고밀, 폴리시안, 롤라드

존 위클리프, 요한 후스, 틴테일 등 피 흘리며 목숨을 희생하면 진리를 지킨 사람들

이들은 동전이 아니라 목숨을 바쳤다.

4.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합당하게 우리의 헌금과 희생의 가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과부 여인은 자기의 전 생활비를 부끄러운 심정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고귀하다고 하신다(고후5:10-11).

5. 헌금과 희생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유명 목사, 평범한 성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동일한 기회

6. 실제 사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고후8)

1-3절, 5절, 12절, 14절

9장 6-7, 우리는 자발적인 헌금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헌금 강요는 죄악이다.

7. 헌금이 바르게 실천될 때 하나님께 영광(9:13)

성도와 교회의 풍성함(9:8)

즉 믿음의 행위이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자식들의 부모의 믿음을 알 수 있다.

8. 주님이 헌금의 동기와 진정성을 평가하신다. 영원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바란다.

유튜브 '헌금의 원리', 18만 조회